

석유 · 화학 경상이익률 크게 하락

한국은행, 2/4분기 9.3%로 떨어져 ... 고유가에 원화환율 상승 영향

고유가와 원화환율 급등으로 2005년 2/4분기(4-6월)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, 수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한국은행이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3/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.

한국은행이 상장·등록기업 1495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<2분기 기업경영분석>에 따르면, 2/4분기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8.2%를 기록해 2004년 2/4분기의 10.6%보다 2.4%p 하락했다.

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제조기업들이 1000원 상당의 상품을 팔아 남긴 이윤이 82원임을 의미하고 있다.

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005년 1/4분기 9.8%를 기록해 분기 기준으로도 1.6%p 떨어졌고, 제조기업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8.6%로 2004년 2/4분기 12.9%는 물론 2005년 1/4분기 9.1%보다도 낮아졌다.

석유·화학은 11.6%에서 9.3%로, 금속제품은 18.5%에서 16.8%로, 기계·전기전자는 7.3%에서 6.9%로 하락했는데, 유가 상승 및 판매가격 하락 때문으로 풀이된다. 특히, 기계·전기전자는 환율하락 영향으로 수익성이 대폭 악화됐다.

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도 2.4%에 머물러 2004년 2/4분기의 19.8%보다 대폭 하락했고, 제조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.7%로 2004년 2/4분기 24.4%의 1/10에도 미치지 못했다.

특히,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% 이상인 수출 제조기업은 매출액이 2.1% 감소해 2004년 2/4분기 27.5% 증가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물론 2003년 3/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.

수출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3년 하반기에 8.6%를 기록한 이후 2004년에는 분기별로 20%대에 머물렀으나 2005년 1/4분기에 1.9%로 추락했다.

수출기업의 매출액 감소는 2005년 2/4분기에 수입원유의 80%를 차지하는 두바이(Dubai)유 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44.1% 오른 배럴당 47.9달러에 달하고, 원/달러 환율도 1008원으로 13.3% 상승했기 때문이다.

한국은행은 “유가 급등과 원화절상이 매출액 감소의 주범으로 유가와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 수출기업은 물론 전체 제조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”고 분석했다.

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2004년 2/4분기 20.1%에서 2005년 2/4분기 7.6%로 대폭 떨어졌다.

투자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0.2%p 상승한 1.5%, 총자산에 대한 유형자산 비중은 0.2%p 하락한 41.3%를 기록했다.

수익성과 성장성은 악화된 반면 재무구조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.

6월말 현재 국내기업들의 부채비율은 93.0%로 1년 전보다 9.5%p 하락했다. 우량 대기업을 중심으로 잉여금이 증가했고, 1/4분기에 일시 증가했던 미지급 배당금 등 비차입성 부채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.

조사대상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일부가 인수·합병(M&A)과 자사주 취득 등에 현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3월 말보다 3조1000억원 감소한 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.

<화학저널 2005/09/23>